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17. 6. 2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해외플랜트 수주 성과 없이 혈세만...”

(’17. 6. 21, 이투데이)

1. 기사내용

-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8개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수주한 프로젝트는 49개 사업(9.6%)에 불과한 실정
- ’17.5월말 기준 6개 프로젝트 해외 타당성 조사비용으로 4억8000만 원이 지원되어 본예산(42억4400만 원) 대비 집행률 11.3%에 불과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’02년부터 ’16년까지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사업은 총 508건(431.1억원) 지원, 49건(4.35조원)을 수주하여 금액기준으로 보면 100배 가까운 성과를 달성
- 동 사업은 지난 5년간 100% 집행 완료한 사업으로, 기업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금년 예산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김기준 과 장 (044-203-5680)
김현진 사무관 (044-203-5682)